

중 국

베이징어언대학교, '인공지능과 출판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 개최

2026. 07. 22.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2026년 6월 20일 베이징어언대학교(北京语言大学)는 교내 중국·프랑스 교류센터(中法交流中心)에서 인공지능과 출판산업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그반차 조바바(Gvantsa Jobava) 국제출판협회(IPA) 회장은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하여 출처 표시·사전 동의·정당한 보상 원칙에 기반한 학습데이터 이용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원칙 제시

국제출판협회 회장은 안정적인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출판·창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함. 출판업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이 도서 등 저작권 보호를 받는 출판물을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고 권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임. 특히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출처 표시(Credit), 권리자 동의(Consent), 정당한 보상(Compensation)으로 구성된 3C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익이 침해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콘텐츠의 창작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정부와 인공지능 기업, 출판사 및 창작자가 협력하여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을 식별하고 이용허락과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학습데이터 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저작물 이용허락을 통한 AI·출판산업 상생방안

국제출판협회는 생성형 AI 플랫폼이 음반사 및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음악산업의 사례와 스웨덴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사업의 창작자 수익 배분 사례를 소개함. 또한 호주의 AI 저작권 예외 도입 거부, 영국의 저작권 보호 약화 입법 저지, 미국의 출판사 소송 지원 및 프랑스의 AI 학습데이터 이용 추정 제도 도입 논의 등 주요국의 권리자 보호 동향을 제시하며, 적법한 이용허락과 보상체계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창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함.

■ 참고자료

IPCC 재중국출판사연맹(IPCC 在华国际出版商联盟)
- <https://mp.weixin.qq.com/s/ZSRjhT60c0OUDcq4a2LB2Q>